"건전하고 투명한 사교육 정착"

전북교육청, 오늘부터 학원설립·운영자, 강사·교습자 역량 강화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20년도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교습자 역량 강화 연수에 나섰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19일 전주시 덕진구 입시보습 분야를 시작으로 7월까지 17회에 걸쳐 상반기 학원장 및 교습자 역량강화 연수가 진행된다. 이번 연수는 학원장 4,052명, 교습자 1,106명 등 총 5,158명이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책임감과 사명 고취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사교육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한 소양교육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학원설립·운영자 준수사항 및 학원법 관련 개정 내용 안내 ▲화재 안전사고 예방 소방교육 등 안전 관련 내용이다.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시설 내 재난대피 등 화재 안전관리 교육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의무교육도 이뤄진다.

한편 외국인 강사를 포함한 학원강사 연수는 하반기 예정돼 있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출입시 발열 등의 증상여부 확인, 좌석 간 이격거리 두기, 참가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학원 운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학원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연수 미이수시에는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잘 노는 아이가 행복한 어른이 된다'

전북교육청 '놀이밥 60+ 프로젝트' 운영사례 발표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놀이밥 60+ 프로젝트' 운영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층 회의실에서 놀이 관련 학교 자율선택과제 운영학교 교장(감)과 담당교사 등 초등교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놀이 활동 참여를 통한 즐거운 학교 만들기' 운영 사례, 중간놀이 시간 및 방과 후 놀이과정 확대를 통한 학교 놀이 활성화 추진 방안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 김태호 팀장이 강사로 나서 '잘 노는 아이가 행복한 어른이 된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유여진 교사(동양초), 김자옥 교사(봉동초)가 놀이로 즐기는 수업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입시에는 체온측정도 실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놀이밥 60+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육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학교 놀이 활성화 정책을 교육현장에 적용해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식물육종연구소 육묘업 등록 교육 실시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교책연구소인 식물육종연구소는 최근 온라인 강의를 통해 2020년 육묘업 등록 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강의로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등록 교육은 전국 육묘업 종사 관련자 및 육묘업 종사를 희망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124명이 교육을 신청했다. 교육과정은 육묘업과 관련된 육묘업 등록 및 분쟁 해결 방안, 묘의 생장 및 접목 기술, 생리 장해, 비료 시비와 병해충 예방 및 첨단 환경 제어 기술 등 8개 과목으로 운영됐으며, 총 16시간의 온라인 교육 이수자 122명에게 수료증이 교부됐다.

묘를 생산하거나 판매를 위해서는 16시간의 육묘업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가운데 육묘업 교육 이수증과 일정한 묘를 생산할 수 있는 하우스 시설을 갖춘 육묘업자는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자 허가를 받아 묘를 생산 판매할 수 있으며, 육묘업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원광대 식물육종연구소는 서울대 및 경북대와 함께 1년에 두 차례씩 육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식물육종연구소장 구양규(원예산업학부) 교수는 "오는 7월 10일부터 2차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육묘업 등록 교육과 고부가가치 품종 등록, 글로벌 사업 협력과 더불어 농촌진흥청 및 김제 씨드밸리 등과 협력해 미래 먹거리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광대 식물육종연구소는 세계의 유전자원을 수집·관리·보존하고, 채소종자 육종을 통해 15개의 품종등록을 마쳤으며, 글로벌 사업으로 중국 연변대와 공동으로 북방농업연구소를 설립하여 중국 용정시에 설치한 5,000㎡ 비닐하우스에서 품종 육성에 힘쓰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우석대학교는 박재철(조경학과) 교수와 서지은(생명과학과) 교수가 '제39회 스승의 날'을 맞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남천현(오른쪽) 총장이 박재철 교수에게 표창을 전달하는 모습. 〈사진=우석대 제공〉

우석대 박재철·서지은 교수, 교육부장관 표창

연구활동·후학양성 헌신 공로

우석대학교는 박재철(조경학과) 교수와 서지은(생명과학과) 교수가 '제39회 스승의 날'을 맞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18일 대학에서 열린 스승의날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남천현 총장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표창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1988년 부임한 박재철 교수는 조경학과 창설 멤버로 농학부장, 조경계획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며 조경학 분야 학술연구 및 대외 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인재 양성에 헌신하고 있다.

서지은 교수는 1988년 부임해 부총장과 교무국제처장 등을 거쳐 생물학과 생명과학 분야에서 왕성한 연구 활동을 통해 학술 진흥과 대학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남 총장은 "연구 활동과 후학 양성에 헌신하면서 학술 진흥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대학교육의 내실화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청했다.

/뉴시스

교육부, 시민감사관 15명→20명

교육부가 사립대학 등 교육부 관할 기관 감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감사관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0명 이내 인원을 새로 선발한다.

교육부가 오는 1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 같이 제2기 시민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7월 임기가 끝나는 제1기 시민감사관 중 연임하는 인원을 고려해 10명 이내에서 새로 선발할 예정이다.

시민감사관 참가 자격에 성별이나 나이 등 제한은 없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률, 회계, 노무, 교육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또는 감사업무 유경험자 등을 우대 선발한다.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교육부 내외부 인사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해 7월 초에 위촉할 예정이다.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뉴시스

전북대 "전면 비대면 수업"

1학기 종강까지… 소규모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운영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비대면 수업(온라인 재택 수업)을 1학기 종강까지 운영키로 했다.

18일 전북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회의를 열어 비대면수업을 1학기 전 기간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대학으로부터 승인 받은 소규모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북대는 비대면 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본부와 단과대학, 총학생회 등이 참여하는 TFT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기존처럼 모든 교과목에 대해 과제 중심의 수업을 금지하고, 교원과 학생 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해 실시간 화상수업을 하도록 했다.

특히, 6월 8일부터 27일까지 소그룹별로 학생을 대면해 학습 상담과 강의 리뷰와 보완 등을 하도록 해 비대면 강의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6월 중 치러질 기말고사 역시 소규모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방법은 필기시험이나 프로젝트 발표 등 교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토록 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재확산의 조짐을 보이면서 학생 보호와 지역사회 감염 예방이라는 대의적 차원에서 1학기 전체를 비대면 수업으로 하기로 했다"며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검정고시·대학 학비지원

군산대학교가 군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구수연, 군산대 아동가족학과 교수)에서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학력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교육과 대학학비 지원을 시행한다.

결혼이민자 학력 지원사업은 학력 등 자격조건 미달로 단순노동, 기피업종 취업 등을 반복하며 사회 저소득층을 형성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검정고시 교육과 대학 학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6월부터 11월까지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검정고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진행된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간씩 관내 검정고시 전문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배울 수 있다. 연중 모집이고, 학력취득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는 언제든지 센터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전북도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결혼이민자에게 학비가 일부 지원된다. 일반대학은 연간 100만원 이내, 방송통신대학 연간 50만원 이내로, 1학기 학비 지원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는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